

□ 기획연재 □

우리 대학의 학부제(1)

최초에서 최고로 : 송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컴퓨터학부

송실대학교 박영택*

송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은 1996년 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컴퓨터관련학과를 통합, 단과대로 승격시켜 창설되었다. 정보과학은 전통적으로 공학의 한 분야, 응용수학의 한 분야, 또는 경영학의 한 분야로 출발한 경우가 많았으나,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등의 출현으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이 강한 학문으로 바뀌었고, 더욱이 응용분야가 예술분야까지 확산되는 등 기존의 어느 학문분야의 우산아래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정보과학에게로 향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과학, 공학, 인문과학, 사회과학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인정받고, 컴퓨터분야의 연구인력을 결집하여 연구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생겼으며, 대학내에서도 독자적인 행정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생겼다. 이런 면에서 송실대학교에서 이번에 정보과학대학을 창설한 것은 한국 정보과학에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정보과학대학의 창설과정, 현운영상황 및 자랑거리, 그리고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창설과정

송실대학교는 1970년 국내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창설하고, 1979년 전자계산학과 대학원 신설, 1987년 정보과학대학원 창설(국내최초), 1992년 인공지능학과 및 소프트웨어공학과 창설(모두 국내최초), 1995년 컴퓨터 통신학과 창설(국내최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정보과

학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1995년에 문교부의 학부통합권고를 계기로 국내최초로 위에 언급한 네 개의 학과를 통합하여 컴퓨터학부를 창설하였다. 통합의 이점으로는 (1) 각종 자원(연구인력, 실습장비, 공간 등)의 효율적 활용, (2) 교과 과정의 효율성, (3) 교수의 강의 부담 감소 등을 생각하였다. 물론 학부로 통합하는데 찬동하는 교수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문교부의 권고없이도 통합되었으리라 판단되지만 문교부의 권고가 촉매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통합과정에서 물론 교수회의도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 학과의 학생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의외의 복병이었다. 해당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설득했는데 통합이 대체라는 명분이 없었다면 설득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학부로 통합되고 난 후, 대학의 허가를 받아 문교부에 정보과학대학신설을 신청, 1996년 봄을 기해 정보과학대학을 창설하였다. 현재는 정보과학대학내에 컴퓨터학부밖에 없지만, 앞으로 정보예술학부, 정보사회학부 등을 신설하여 공학에 치중한 현재의 방향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이 주로 데이터 처리, 시스템 관리 등의 분야에 취직하던 경향을 탈피하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분야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정보과학대학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문교부의 허가를 얻어 정보과학대학원(야간 특수대학원)에 정보미디어 학과를 창설하여 1997년도 1학기

*중신회원

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정보예술학부를 창설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운영상황

2.1 전공분리문제

현재 컴퓨터학부에는 기존의 네 개 학과에서 유래된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통신 등 네 개의 전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공을 선택하면 해당 전공분야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과목을 들어야 전공취득이 인정된다. 취득된 전공은 졸업장에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전공이 이 네 개의 이름이 의미하는 분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게 있어, 이 전공분리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 등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네 개의 분야 중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병렬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 네 분야는 기존의 학과명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부전공명칭으로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2.2 보직

정보과학대학의 보직은 일반 단과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장, 교학부장이 있고, 컴퓨터학부 학부장, 전자계산학과 학과장, 인공지능학과 학과장, 소프트웨어공학과 학과장이 있다. 학과 학과장은 기존학과의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97년까지만 유지하고 98년부터는 네 개의 전공에 대해 전공별 주임교수를 둘 계획이다.

2.3 교수진

컴퓨터학부내에는 현재 24명의 교수가 있고, 2~3년내 30명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 현 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속은 전공분야, 학장님을 제외하고는 가나다순).

- 이철희(학장, 데이터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chlee@computing.soongsil.ac.kr
- 김명원(신경회로망, 인공지능), mkim@computing.soongsil.ac.kr

- 김명호(병렬알고리즘, 병렬처리), kmh@computing.soongsil.ac.kr
- 김병기(교학부장, 컴퓨터 구조, ATM 스위치), bgkim@computing.soongsil.ac.kr
- 김석윤(설계자동화, 고집적회로 해석), ksy@computing.soongsil.ac.kr
- 김수동(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기술), sdkim@computing.soongsil.ac.kr
- 류성열(리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syrhw@computing.soongsil.ac.kr
- 문영성(컴퓨터 네트워크,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mun@computing.soongsil.ac.kr
- 박영택(컴퓨터학부장, 인공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park@computing.soongsil.ac.kr
- 백두원(컴퓨터 그래픽스, CAD), dpaik@computing.soongsil.ac.kr
- 송후봉(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언어), song@computing.soongsil.ac.kr
- 신용태(컴퓨터 네트워크, 그룹통신), shin@computing.soongsil.ac.kr
- 양승민(실시간 시스템, 결합허용 분산시스템), yang@computing.soongsil.ac.kr
- 오해석(전자계산소장, 멀티미디어 통신, 멀티미디어 DB), oh@computing.soongsil.ac.kr
- 유재우(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 cwyo@computing.soongsil.ac.kr
- 이상호(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처리), shlee@computing.soongsil.ac.kr
- 이수원(인공지능, 기계학습), swlee@computing.soongsil.ac.kr
- 임영환(멀티미디어, 정보통신), yhlm@computing.soongsil.ac.kr
- 장훈(컴퓨터 시스템, 설계자동화), hoon@computing.soongsil.ac.kr
- 전문석(전자계산학과장, 통신암호학, 영상 압축통신), mjun@computing.soongsil.ac.kr
- 정기원(정보과학대학원장, 소프트웨어공학, 실시간시스템), chong@vic.soongsil.ac.kr
- 정문렬(컴퓨터 그래픽스/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moon@multi.soongsil.ac.kr

- 최재영(병렬 및 분산처리, 분산 컴퓨팅), jchoi@computing.soongsil.ac.kr
- 최형일(인공지능, 컴퓨터비전), hic@computing.soongsil.ac.kr

2.4 학생수, 조교수

학부재학생은 1,133명이며, 대학원 재학생은 170여명, 대학원 조교는 20명이다.

2.5 대학원 편제와의 관계

대학원은 학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컴퓨터 학부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다. 교수는 공식적으로 컴퓨터 학부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학부 학부장이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3. 컴퓨터학부 자랑거리

컴퓨터학부는 국내 여러 컴퓨터 관련학과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인원구성, 장비, 대외적 평가, 정보화를 위한 노력, 산학협동 등의 분야에서 간단히 기술한다.

3.1 인원구성

컴퓨터학부는 전국에서 최다의 교수(24명)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500명의 학부 졸업생을 보유하고 있어, 컴퓨터 분야에서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승실졸업생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학부 재학생도 1,130여명이나 되어 앞으로 많은 수의 컴퓨터 분야 일꾼을 양성하고 있다.

3.2 시설

승실대학 컴퓨터 교육은 예전부터 실습교육을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실습실 및 실습장비를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컴퓨터학부 보유 컴퓨터 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초고속 정보통신용 교환장비 (초고속 정보통신망 공동 이용 센터 지정)

- (2) SUN SPARC 1000/1000E server 4대
- (3) SUN SPARC 워크스테이션 40대
- (4) X Terminal 97대
- (5) Multimedia PC 206대
- (6) Laser Printer 35 대
- (7) 액정, Beam Projector 5대

한편, 컴퓨터 학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앙전자계산소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VAX-6420
- (2) Hi-Server 6000 (Ticom II)
- (3) CONVEX C120 Super Computer System
- (4) VAX-11/780
- (5) SUN SPARC 1000/1000E server 2대
- (6) SUN SPARC 워크스테이션 11대
- (7) 실습용 PC 300 대

한편, 인공지능언어 및 도구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및 DBMS, 소프트웨어 공학 툴, 설계자동화 도구, 애니메이션 도구 등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

3.3 대외적 평가

1994년 시사저널지에서 각 대학 학과장에게 설문조사하여 선정한 전국 정보과학관련학과 상위 10 리스트에 승실대 전자계산학과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996년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고 정통부와 교육부에서 후원한 대학정보화 순위평가에서 KAIST, 포항공대에 이어 전국 3위(종합대학 1위)를 하였다. 최근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육개혁우수대학에(세계화 및 정보화 부분) 선정되어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3.4 정보화를 위한 노력

동아일보사의 정보화 순위선정에서 전국 3위를 한 그 노력을 계속한다는 뜻에서 최근 약 15억원을 들여 교내에 ATM 망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교내 ATM 망을 토대로 학교에서는 교육방송국을 창설, 교내 어디서나 시청각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교육이나 컴퓨터 교육방송을 ATM 망을 통하여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신원 그룹과 재택 수업(Lecture on Demand, LOD) 자료 제작

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로 산학협동을 결정하였다. 올해 일단 2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해당 교과목의 강의 재료가 멀티미디어화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나 집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탐색함으로써 강의실에 모이지 않고도 학습을 할 수 있다. 특히 교내에서는 ATM 망이 깔리게 되므로 시청각 자료를 실시간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내에서는 주문형 수업에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요즘 신문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사이버대학(Cyber University)으로 가는 노력을 숭실에서는 이미 시작하였다. 공대, 자연대, 인문사회대 등 20명의 교수가 자기 과목을 주문형 강의를 위해 멀티미디어화하기로 하고 LOD 과제에서 보조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3.5 산학협동

컴퓨터학부는 산학협동에서도 열심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컴퓨터 사용자협회와 산학협동 자매결연을 맺었고, 신원그룹과 주문형강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산학협동을 조인하였으며, 한일 경제연구소와 산학협동을 맺었다. 그리고 각 교수별로 다수의 산학협동과제(1996년 현재 45개의 과제를 수행중)를 수행하고 있으며, 컨설팅, 강연 등을 하고 있다.

4. 비 전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은 숭실대학교가 특성화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 더욱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유치하고 국내,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하여 연구중심체제로 나아갈 계획이다. 현재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컴퓨터 관련 국내 상위 10위 내에 든다고 생각되는데, 2000년에는 상위 3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HCI '97 학술대회 ●

- 일 자 : 1997년 2월 18~20일
- 장 소 : 용평 피닉스파크
- 주 최 : HCI연구회
- 문 의 처 :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 이만재 교수
T. 02-710-9379